사전에 禪學을 망라하다



정원 스님은… 1969년 일우 스님을 의지해 출가했으며, 1980년까지 일우 스님으로부터 선교를 배웠다. 1984년 8월 천안 광덕면 매당리에 평심사를 창건하고 11년 간 칩거하며 〈고려대장경〉〈대정신수대장경〉〈대일본속대장경〉〈한국불교전서〉〈조선불교통사〉 등 내전을 두 차례 열독했다. 이후 〈현구집〉을 비롯해 〈태화당수세록〉 〈대장사원(大藏辭苑)〉 〈선림송구집(禪林頌句集)〉 〈선문염송집표주(禪門拈頌集標註)〉를 간행했다. 2014년 6월에 〈태화선학대사전〉을 한문본으로 출간했으며, 2016년 〈선종천자문〉을 발간했다. 올해 1월에는 〈태화선학대사전〉을 증보 · 한글화 한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을 10권으로 완간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입방과 공양

B5 문화
허회태 '심장의 울림' 展

B6 학술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논문

산문 밖의 禪

정원 스님 천안 평심사 주지

천안 ·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사전(辭(事)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와 함께 했다. 어문을 익히는 데 기본이 되는 단어의 의미 · 품사 · 용법 · 어원 · 표기법 등을 해설하거나 일련의 사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들을 사전은 제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은 인류 지식의 요체를 모은 결집이면서 확장을 도모하는 교보재이기도 했다.

불교에도 이 같은 사전들이 고래(古來)로 존재했다. 송나라의 선향(善鄕)이 선지식의 어록에서 어려운 낱말 2400여 개를 꼽아 풀이하고 그 출전을 밝힌 〈조정사원(祖庭事苑)〉은 일종의 불교 선학 사전이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학문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불교사전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음에도 유독 〈조정사원〉과 같은 선학사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진짜 선학사전이 나오기까지

하지만, 근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학사전인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이 10권으로 완간됐다는 것이다. 이를 편찬한 사람은 천안 매당리 평심사라는 작은 사찰의 주지인 정원 스님이다.

스님이 편찬한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2014년 내놓은 한문본 〈태화선학대사전〉을 증보 · 한글화 한 것으로 무려 5년에 걸친 역경불사였다.

10권에 걸친 분량만 10,024쪽에 달하며, 사목(詞目)은 42,235항(項), 예문은 34,068조(條)이다. 보주(補註) 역시 1,315목(目)에 이른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 선학사전을 뛰어넘는 분량으로 스님 스스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부하는 이유가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선학대사전(1985)〉과 중국의 〈선종대사전(2010)〉은 표제어도 없고 분량도 1800여 쪽과 614쪽 정도다.

정원 스님은 〈태화선학대사전〉이야말로 선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사전임을 강조했다.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음에도 선학 관련 사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과 일본에 사전이 있기는 하나 너무 빈약합니다. 하지만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한글뿐만 아니라 원문 예문과 출처가 함께 있어서 한자문화권 사람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원 스님은 2014년 〈태화선학대사전〉까지만 불사를 할 생각이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태화선학대사전〉 발간에 도움을 준 이철교 前 동국대 출판부장이 이번에도 불을 붙였다. 그는 한음순(韓音順)으로 정렬한 사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스님은 결국 고민 끝에 한글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늘 그렇지만 스님의 출판 불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서문에도 밝히고 있지만, 스님의 출판은 모두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 사찰 요사채 안에서 혼자 작업해 이뤄진다. 편역, 수교는 물론 컴퓨터 문서 작업과 조판까지 모두 혼자서 한다. 세납이 70세지만, 어지간한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 문서 작업에 능숙하다. MS워드와 한컴오피스의 장단점까지도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다.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을 작업해서 지금의 국역본 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없으니 학자나 출판업체에 맡길 수 없습니다. 1만여 쪽에 대한 타자 작업 비용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제가 편역부터 컴퓨터 조판까지 1인 4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는 좋은 스승과 사전 있어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함에도 정원 스님이 사전 편찬 불사를 오롯이 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는 좋은 사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평소 스님의 지론 때문이다. 스님은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좋은 스승'이고 둘째는 '좋은 사전'이라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회자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원 스님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 동안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일본속장경〉 〈한국불교전서〉 〈조선불교통사〉 등을 2회 열독했다. 대장경 등 내전을 2차례 읽어가는 데 선학 쪽 용어가 막혔다. 그래서 사전을 찾았는데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전 편찬 계기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짧게 답한 것이다. "내가 답답해서.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정원 스님은 대장경과 어록을 보면서 출처와 예문들을 모두 정리했고 이는 국역에 앞서 내놓은 2014년 한문본 사전에 모두 담겼다. 사전 안에 "쓸데없는 말이 없다"고 자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사전에는 경전과 어록에 대한 출전과 원문 예문까지 친절하게 수록돼 있다.

'선학사전'이라는 대작불사

〈국역태화선학대사전〉 10권 완간
2014년 태화선학사전 증보 · 韓譯
1만 페이지 · 4만 2천여 사목 자랑
경전 · 어록 근거 예문 3만 4천條
中 · 日 사전보다 방대 · 질도 우수

매일 평균 14시간 간경 · 번역 작업
디지털 문서 · 조판 직접… 1인 4역

그렇다면 장장 11년동안 두문불출 내전을 간경한 계기는 무엇일까. 스님은 경전 역경을 꼽았다. 출가 이후 경전 번역을 시작했지만, 하다보면 오류가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대장경을 통독하자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30년 전부터 경전 번역을 했죠.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 모두 붓으로 썼습니다. 대장경 간경을 발원하고 〈고려대장경〉을 구해 읽었는데 이는 오픈게임이었어요. 〈고려대장경〉을 다 읽었는데도 모르는 것이 나와서 〈대정신수대장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정신수대장경〉은 오자도 많고 어록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속장경〉을 구해서 읽었어요. 이를 반복한 것입니다."

스님의 번역은 직역이다. 시문이나 소설은 의역이 가능하지만, 불교 경전은 의역을 하면 안된다는 게 정원 스님의 주장이다. 한 글자(一字)의 해석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원문을 복기할 수 있어야 잘된 번역이라고 본다. 그래서 스님은 이번 국역 사전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B2면에 계속